

강기정 시장, 금타 공장 이전·노동자 고용 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 박균택의원과 서울본사 대표이사과 면담...실질적 대책 강구
금타 대표, 오늘 中 최대주주 만나 화재피해 복구 로드맵 논의 예정

금호타이어(금타) 대표가 광주공장 화재 사태 수습을 위해 18일 최대주인 중국 기업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향후 로드맵을 논의하기로 했다. 화재 발생 한 달이 다되어야 되늦게 최대주주를 만나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할 향후 로드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 이사가 18일 중국 청다오에 위치한 더블스타 본사를 방문해 금호타이어 대주주 측과 '화재피해 복구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장은 이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새 공장 건립 및 노동자 고용안정 등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금타 서울본사를 찾아 정 대표이사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의원도 함께했다.

강 시장은 지역 고용 불안과 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복구 및 이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화재 피해 설비 복구 일정, 공장 재가동을 위한 조건, 휴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방안, 공장 이전 계획과 부지 용도변경 등 주요 사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금타와 협력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장 복구와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정 대표이사는 "지역민 원원과 애정을 잘 알고 있고, 18일 더블스타 중국 본사를 방문해 대주주 측과 '화재피해 복구 등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뒤, 7월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줄곧 밝혀준 데다 회사 발전방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공장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금타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새공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며 "광주시는 고용 보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복구 및 공장 이전 준비 등에 전폭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금타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금타측이 7월 초 발표하기로 한 로드맵에 새공장에 대한 이전 건립 계획을 내놓을 경우 광주시·국회·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금호타이어 이전지원단' (가칭) 구성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금타 경영진 면담에 앞서 지난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황용필 대표지회장 등 금타 노조를 면담을 진행하면서 고용 불안 해소, 협력업체 피해 대책, 공장 복구 및 이전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금타 노조와 중국 더블스타 경영진 간 면담 내용도 공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구갑)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를 방문해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5성급 호텔 꿈인가

▶1면에서 계속

광주신세계는 그동안 광주시와 주거시설 면적 확대 여부를 두고 대립하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일단 기존 사업계획서 내용을 유지하는 선에서 제안서를 낸 뒤, 수익성 여부 등을 고려해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신세계와 광주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안서에 담긴 사업 내용의 축소가 불

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신세계는 기존에도 사업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으며, 수익성 관련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적자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호텔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 자체를 배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광주는 이번에도 '5성급 이상 특급호텔이 없는 국내 유일의 대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산·전방 개발 사업자가 현재 세계 우수 업체의 참여 의향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세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지역민들이 염원하는 특급호텔 건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방·일산방직 공장부지 개발사업은 광주 북구 임동 일대에 '더현대 광주'를 비롯해 300실 규모, 49층 높이의 특급호텔과 4315세대의 주거복합(아파트)을 조성하는 것이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확장과 함께 특급호텔을 갖춘 최대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이다.

광주FC 재정난, 노라조 조빈이 나섰다

‘전팬’ 이자 홍보대사...프로젝트 이틀만에 1500만원 모금

고질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에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광주FC의 홍보대사인 가수 조빈(사진)이 '광주FC 돕기 프로젝트'에 나섰고, 이틀 만에 1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광주FC는 최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제4차 상벌위원회에서 제재금1000만원과 선수 영입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맹이 지난 2023년 도입한 재정건전화 2년 연속 위반에 내려진 조치다. 선수 영입금지의 경우 3년 유예를 받아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갈 길은 멀다.

2027년 회계 연도까지 자본완전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연맹이 지난 2월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광주는 '선수 영입금지' 제재를 받게 된다.

매년 불거지는 재정난 문제가 선수단과 팬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빈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조빈은 광주FC의 경기가 있는 곳이면 사우나·디자이너까지 달려갈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는 '전팬'.

관중석에서 힘을 보태주던 조빈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시민



구단 광주FC의 재정 문제는 매년 언급되고 있지만,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조빈이 직접 나서자 팬들도 움직이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날 8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모아졌다.

5000원 소액은 물론 200만원을 보낸 팬들도 있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조빈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사단법인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조빈은 "17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모금액이 1500만원이 넘었다. 우리 팬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광주FC도 유소년 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는 등 이정호 감독을 중심으로 광주에 불고 있는 축구 바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생방 중 폭격’ 방송... ‘국민 영웅’ 된 이란 앵커

IRIB 간판 앵커 사하르 에마미
‘저항·용기의 상징’ 찬사 쏟아져

1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가 이스라엘에 폭격 당하면서 생방송 도중 황급히 몸을 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노출한 여성 앵커가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방송을 재개해 이란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사진>

스페인 EBF통신에 따르면, IRIB 소속 사하르 에마미 앵커는 이날 테헤란 북부 IRIB 방송국 본사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규탄하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에 스튜디오에 연기가 차오르고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자리를 떠나서는 그의 모습과 함께 방송국 직원들이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송출된 뒤 방송이 뚝 끊긴 터라 화면을 접한 시청자들은 에마미 앵커와 현장에 있던 IRIB 다른 직원들의安危를 염려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에마미 앵커는 폭격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스튜디오로 옮겨 방송을 재개했고, 함께 진행하던 다른 앵커에게 원래 방



송을 하던 스튜디오에서 기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IRIB 방송도 자사 직원 중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중에 국영 방송국이 미사일을 맞는 유례 없는 상황을 직접 목으로 겪고도 의연하게 방송에 복귀한 에마미 앵커에 이란에서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란 언론과 친정부 인사들은 에마미 앵커의 강인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이란의 저항을 상징하는 ‘국민 영웅’으로 추켜 세웠다.

한편, 이스라엘 와이넷뉴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앵커로 경력을 쌓은 에마미 앵커는 이란을 대표하는 간판 뉴스 진행자로 꼽힌다. /연합뉴스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당사는 2025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주주총회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당시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대경개발 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99, 분당수지유타워 에이동 237호
공동대표청산인 김 미 경
공동대표청산인 김 영 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혜진(781109-2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북구 설죽로196번길 8-9, 201호(용봉동)

피상속인 망 이혜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5월500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8일

• 상속인 : 김영하(040803-4XXXXXX)
광주 북구 설죽로196번길 8-9, 201호 (용봉동)
• 신고기간 : 2025. 6. 18. ~ 2025. 8. 2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영하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이석실(541205-2XXXXXX)
• 최후주조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96-3

피상속인 망 이석실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5월162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8일

• 상속인 : 김용기(510328-1XXXXXX)
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96-3
• 신고기간 : 2025. 6. 18. ~ 2025. 8. 2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용기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장황수(390627-1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동구 학소로76번길 2, 에이동 306호(소태동, 백조아파트)

피상속인 망 장황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5월500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8일

• 상속인 : 장준화(601003-2XXXXXX)
광주 동구 화산로 352, 101동 707호 (용산동, 한국아파트)
• 신고기간 : 2025. 6. 18. ~ 2025. 8. 28.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장준화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광고문역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권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